

1968年度의 特殊圖書館

李 鍾 禧

(交通公務員教育院 圖書館長)

序 言

1968 년도 저물어가는 이 허전한 瞬間, 敢히 孔子님
의 語法을 본떠서 꼭 한마디만 宣言하고 싶다.

“吾願一以貫之 足食”

우리 圖書館界는 解放以來 刮目할만한 發展을 거듭
해왔다.

圖書館運營이 하나의 科學으로서 몇몇이 君臨하게
되어 各大學의 正規의인 專攻科目으로 選定, 獨立學科
가 다루어 設置되었다.

圖書館協會를 中心으로 各 館種別大會의 盛況이 每
年 이루어지고 있다.

隨時로 圖書館發展을 위한 研究가 本誌를 통해 活潑
히 發表되고 있다.

每年 圖書館의 增設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에는 無慮
3,617館을 誇示한 程度로 되었다. 特히 이 增設數는
1959 年 70 館에 比해 그 發展이란 그야말로 놀라운
現狀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一聯의 趨勢아래서 꼭 한가지 우리들의 哀
切한 宿願이 아닐 수 없는 待遇改善問題는 依然未解決
인 채 이해도 그대로 넘어가고 마는가 보다.

1967年 以來 協會를 中心으로 출기차게 當局과 交涉
된 것으로 아는 이 問題가 快히 解決을 보지 못함에는
그 가운데 여러가지 難問題가 介在된 것으로 알지만
어떻든 이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限, 우리 圖書館人들
의 士氣는 沈滯一路를 걸지 않을 수 없다.

本稿의 課題는 特殊圖書館界만을 돌아 보는 1968 年
度의 回顧談이겠으나 筆者의 腦裡에는 오로지 이 한
問題만이 큼지막하게 자리잡고 있어 餘他的 諸般事는
좀체로 興味를 돋우어주지 못하는 듯 하다.

우리들의 살림

그런대로 우리들의 살림을 보살펴보면 1967 年度에
特殊圖書館 總數 99 個館이던 것이 今年에는 111 個館
으로 19個館이 늘었고, 職員總數 558 名에 대하여 622
名으로 64 名이 늘었고, 藏書總數 912,134冊이 1,113,
857 冊으로 201,723 冊이 늘었다. 그리고 今年 5月 30
일에 中央日報社 會議室에서 特殊圖書館大會가 開催되
었는데 이 會議에서는 “現行圖書館法의 問題點”, “特

殊圖書館의 分館設置 및 運營策”, “特殊圖書館에 있어
서의 專門司書의 役割” 등 세 議題發表가 있었고 이에
關聯한 여러가지 問題가 論議 決定되었다.

特殊圖書館界의 本山이라고 할 수 있는 國會圖書館
에서는 司書局, 參考書誌課에서 여러가지 圖書館關係
의 貴重한 文獻을 活潑히 出版해 주어서 特殊圖書館뿐
아니라 全 圖書館界의 盛事라 아니 할 수 없다.

繼續 무게 있는 資料를 發刊해서 館界는 勿論 學界
에 裨益케 하여 주기 바란다.

피맺힌 녀두리

特殊圖書館運營에는 各己 그 圖書館이 屬해 있는 機
關과의 紐帶 如何에 따라서 그 進運의 消長이 左右되
는 것이므로 恒常 이 方面의 纖細한 人情機微에 神經
을 모으지 않을 수 없다.

原則論만 내 세우고 教科書式인 허울좋은 靑寫眞의
展示나, 自己 마음만 믿고 다듬어지지 못한 忠誠心이
나 愚直한 熱誠의 奮發이 아무리 衝天하드라도 相對方
에게 먹혀들어가지 못하는 主張이나 方針은 何等 効驗
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남모르는 苦衷과 隘路가 있다. 特히 弱者의
立場일 수록 이러한 雜事들은 늘 그 本事業보다도 더
머리를 앓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人間이란 高等動物들이 모여 사는 이
社會生活에 있어서나 또는 行政面에 있어서의 妙味인
지도 모른다.

圖書館側에서 제아무리 建設的인 아이디어나 嶄新하
고 아름다운 꿈을 가꾸어서 誠意껏 만들어 내 놓은 計
劃과 建議들이라 할지라도 받아보는 側에서 何等 興味
가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一願의 價値도 없는 것이 되
어 버리고 만다.

筆者가 圖書館 7 年동안의 生活속에서 얻은 結論과
決算이라면 아마 이러한 試行錯誤의 惡循環, 意慾과
挫折의 慘憺한 回歸律, 이런 것들인지로 모른다.

이것은 非但 今年에만 限한 問題도 아니며, 館界 全
般에 걸친 共通의인 傾向이라고 斷定할 수도 없는 問
題겠지만 1968 年을 되돌아 보는 이 마당에 있어서 筆
者의 皮맺힌 어쩔 수 없는 녀두리 인지도 모른다.